“혁신·변화로 광주다움 회복” “일자리 찾아 돌아오는 전남”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취임사로 본 시도정 운영 방향

이, 시민의 삶 바꾸는 일자리 시장 등 7대 시정 방침 제시

김,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포스코 ESM 투자협약 첫 결재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전남도청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취임 선서를 하는 등 민선 7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용섭 시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김영록 지사는 일자리와 인구에 방점을 찍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민선 7기 광주시정의 중심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애초 이날 광주시는 이 시장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북상에 따라 직원 정례조회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이 시장은 취임 선서와 함께 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민선 7기가 그리는 광주 청사진을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직접 밝혔다.

이 시장은 “정의로움의 역사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방침으로 제시했고 7대 정책 방향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이 없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다움 회복으로 사람과 돈, 기업이 모이는 광주 ▲4차 산업혁명시대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 중심도시 ▲운명공동체인 광주·전남의 번영 도모 ▲지방분권시대 차별화된 광주발전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정례조회 후 기자들과의 만나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광주 고유함을 상품화·산업화해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민에 대한 예우와 도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임선서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지사는 취임선서 직후 전남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한 뒤 태풍 진로 등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전남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전남 번영시대를 실현하겠다”면서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생명의 땅에 새로운 희망이 역동적으로 피어나는 전남, 자유가 들꽃처럼 피어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표방한 김 지사는 민선7기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취임 첫 결재도 ‘에너지밸리 1000개 기업 유치’와 ‘㈜포스코ESM과 투자협약’에 서명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에 자리잡은 에너지밸리에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기업, 에너지신산업 등 기업 1000개를 유치해 청년들의 전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과 연계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게임·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기업유치를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선7기 첫번째 투자 협약은 오는 5일 ㈜포스코ESM과 체결한다. 포스코ESM은 율촌1산단 16만5287㎡ 부지에 570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2차전지 원료인 양극재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340여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LG화학, GS칼텍스 등 대기업 증액 투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게임 등 콘텐츠 기업을 집중 유치해 청년이 전남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부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부시장·부군수 최소 8명 교체

광주시·전남도 조만간 인사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의 경우 민선 6기 막판에 일부 구청에서 ‘시청 국장이 자치구 부구청장을 맡는’ 관행에 반발했던 만큼, 민선 7기 첫 부구청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 5개 구청 중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문인 북구청장만이 행정 경험이 있고 나머지 4곳의 신임 구청장은 비행정가 출신이다 보니, 일선 구청에서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부구청장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임 구청장들이 인사와 예산 등에 밝은 부구청장을 물색하고 있고, 일부 시청 국장과 몇몇 신임 구청장이 함께 일을 하겠다는 뜻을 이용섭 시장 측에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2일 조직 안정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부단체장 인사 단행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는 8월 조직개편 전에 조직 안정을 위해 부시장·부군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폭은 22개 시·군 부단체장 가운데 최소 8명 이상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남도 인사규칙상 부단체장은 임기 2년이 되면 교체 대상이라는 점에서 3명이 갈린다.

대상은 최종선 여수부시장을 비롯해 김명원 영광부군수, 심남식 곡성부군수 등이다.

신현숙 광양부시장, 위삼섭 장흥부군수, 조태용 함평부군수 등 3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인사요인이 발생한다.

오재선 신안부군수는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소영호 고흥부군수는 비서실장으로 발탁됨에 따라 두 자리가 비었다.

나주부시장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재윤 부시장이 승진 임용될지, 3급 국장으로 교체될 지 관심이다.

여기에 새롭게 입성한 시장과 군수가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선다면 부단체장 교체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을 비롯해 순천,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등 9개 시·군 단체장이 바뀌었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인사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신임 지사가 8월 조직개편전 부단체장 인사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소 8곳은 교체가 될 것”이라며 “단체장과 협의 과정에서 인사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계기 될 것”

문대통령 감기 털고 수석 회의

8일부터 인도·싱가포르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며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감기몸살로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냈던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러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이다.

노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다들 안녕하십니까.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됐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며 “민선 7기의 출범은 지방분권 개헌의 성공 속에서 이뤄지기를 국민이 바랐는데, 개헌이 무산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무산으로 제2 국무회의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이날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8~11일 인도를 국빈방문하는 데 이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초청으로 11~13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